

큰스님 수행한담

성내지 말고 사세요



1961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기념촬영했다. 앞은 스님은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청담 동산 석암 스님이며, 서있는 스님 앞에서 둘째줄 오른쪽 끝이 일여스님이다.

속가 고향이 황해도 신계인데 고등학교 재학중에 6.25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사람은 전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아 그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중앙상고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제대후 얼마있다가 대구 앞산에 있는 안일사로 들어 갔습니다. 전광도 겪고 부모와도 생이별을 한데다 인생살이가 결국 죽으면 한층 휴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미치

전진암과 비구스님이 거쳐하는 낙사암이 있었는데 낙사암에는 범어사출신의 한 노장스님만이 홀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청담스님은 나를 그 스님한테 보냈는데, 그 노장스님은 제자를 거두지 않는다는데, 결국 이래저래 나는 범어사와 인연이 있었던게지요. 당시 범어사 금오선원은 일타 서암 도우 성철 서용 지효스님 같은 쟁쟁한 분들이 공부를 하신 도량입니다.

일마다 부처님께 공양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면 현재처한 그곳이 부처님 자리

동산스님은 말없는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을 보살렸습니다. 하루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노니 나와 남의 마음이 돌이 아니라고"는 내용의 활구(活句)를 나 몰래 책상머리에 붙여 놓으시는 자상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신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지은 게 이기는 것이니 성내지 말고 마음편하게 사십시오." 또는 "현실에 만족할줄 알면 그 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삶은 환희로운것임을 잊지마세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지지 못하거나 패배자의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만족할 줄 없습니다. 작고 크다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돌이켜보면 금방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고회를 넘겼는데

여분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망령된 견해를 쉬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걸리면 태양이 빛나듯 태양을 따로 찾으려 하지 말고 망상의 구름만 걷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은 부처님과 같이 자성정착한 진여본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여자성을 보지 못하는 까닭도 망견이 있을 거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니 망견만 쉬어버리면 진여자성을 달리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견이란 곧 두가지의 견해, 즉 선악 시비 중에 등의 분별심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들은 버리고 하나는 취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용에는 이 하나마저도 놓아 버려야 합니다. 두가지 견해를 떠나서 중도를 취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도 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만법이 원용무애하여 아무 허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경계마다 돌 아닌 것으로 보고 지금 자신이 하고있는 일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處處佛事 事事供佛)으로 생활하면서, 머무르는 곳마다 마음의 주정자를 세워 탐진처에 속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면 현재 처한 그곳이 바로 부처님 자리가 될 것입니다.(隨處作主 隨處皆眞)

생사관문을 넘어서야 비로소 세상일에 끄달리지 않고 부닥치는 경계속에서 여여(如如)해탈수 있으니 정외관인(塵外關人)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불심(佛心)은 곧 그 가르침이 체화되어 행(行)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시절인연에 따라 흔들려도 불심의 근본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자는 모름지기 법을 등불로 삼아 고독하게 그러나 깨끗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법안이 일어나고 종단이 흔들린다고 해서 덩달아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늘 더불어 있는 불심은 여려한 법이니 자기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 부동성으로 정진하세요.

정리=이훈호 기자 (yhllee@buddhapia.com)



배금자

(변호사)

내 속에 참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4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1996년 1월 나는 변호사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유학 길에 올랐다. 그 무렵 나는 동료 변호사의 소개로 안양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을 친견할 기회를 가졌다. 그때 비로소 '참나'의 존재, 내 몸과 현재 의식은 '가짜 나'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나에게 놓는 관법을 통해 내게 닥친 일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보이는 현상계만 전부인 줄 알고 살던 내가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깨닫고, 내 안의 참나를 찾는 진실된 불법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미국생활 3년동안 우리 가족은 한마음선원 위싱턴지원에 다니면서 마음공부에 매진하여 정신적인 생활의 틀을 다졌다. 내가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는

한 번은 방송국의 카메라 맨이 높은 언덕에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카메라 맨이 하는 말이 촬영한 테잎은 다음에 방송으로 내 보낸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그 모든 것은 어김없이 우주에 기록되어, 운명을 만들고, 나는 그 결과를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받는다는 인과의 법칙을 참나가 보여 주었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꿈과 현실이 틀이 아니라는 것도 실감했다.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과의 무서움과 윤회의 철칙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생각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안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참나에게 돌리고 좋은 생각을 내게 하는 작업을 되풀이하였다. 마음 공부의 정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나쁜 '습'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정말로 '습'이란 내가 전

마음공부 시작 나쁜 '습' 하나씩 제거 인과의 무서움-윤회의 철칙 실감

라 보스톤에서 생활하고, 남편은 워싱턴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아들을 돌보며 있는 동안, IMF위기가 터졌다.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마음공부로 극복



생애 수없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갖은 것이어서, 뿌리가 깊고 질기가 삼겹과 같아서, 좀처럼 뿌리채 뽑아버리기 힘든 '업력'의 작용이 있는 것 같았다.

했다. 우리는 정신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생활했기 때문에, 물건 사는데 관심이 없었고 골프도 안했다. 오직 일요일에 집에 열심히 다녔다.

또한 깨달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미워하지 않고, 내탓이려니 하며 극복하였는데, 이는 마음공부 덕분이었다. 내게 닥친 모든 경계를 나를 단련시키려는 참나의 가르침으로 알고, 모든 것을 참나에게 맡기고 의연하게 견뎌냈다.

마음공부에 열심히 정진하기 시작한 후부터, 참나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체험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땅 깊숙히 박힌 쓰레기를 파내며 청소를 하는 꿈을 꾸곤 했다. 쓰레기를 쫓는 꿈이 반복되던 어느 날 나는 화장터의 간수가 되어, 시체를 아궁이에 집어넣어 태우는 꿈을 꾸었다. 내가 만들어 낸 쓰레기(業)를 청소하는 작업을 참나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동국대에 서 교환교수로 하버드 신학대에 오신 현각스님을 만났다. 나는 학교공부에 너무 바빠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혼자서 아침마다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읽고, 참선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기간에 현각스님이 보스톤에 오신 것은 나로서는 참나가 인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일이었다. 불교이론에 관한 의문이 생길 때 현각스님께 여쭙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법회에는 미국 지식층 백인들 약 7천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 것을 보고, 미국의 지식층 사이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

"만족할 줄 알면 행복, 만족모르면 불행" "망상의 구름만 걷어내면 태양 만나요"

자 허무함이 절절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주관적인 것일 뿐 모든 행복도 죽음앞에서는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바에야 출가해서 공부하면 잘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못되도 공부하다가 죽으면 나 자신에게 찌릿할 것 같았습니다.

안일사에 가니 범어사 도감자리를 쾅개치고 떠나온 무진장스님(당시 해명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의 소개로 범어사로 가던 도중 원행열차 안에서 기동이 당당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꾸벅하며 범어사로 간다고 했더니 자신을 따라가자고 하세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 유명한 청담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따라 육전을 거쳐 고성 운흥사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년동안 행자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운흥사에는 비구니스님이 사시는

범어사에서는 가끔 야식으로 국수를 삶아먹었습니다. 간식종류가 많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국수나 감자는 아주 별미에 속했습니다. 양념을 넣어 후루룩 먹다보면 먹는건지 마시는건지 눈감짝할 사이에 그릇바다에 보이곤 했습니다. 많은 양의 국수를 삶다보니 퍼지기가 일수였는데 하루는 너무 불어터져서 딱처럼 딱적이 있었습니다. 동산스님이 다시 삶으라고 열정을 내렸어요. 내가 나가서 삶았었는데 누가봐도 아주 알맞게 잘 삶겼던 걸 같습니다. 대중공양이 끝나고 동산스님께서 "국수, 누가 삶았노?" 하시길래 "제가 삶았습니다" 했더니 "그래, 매사 그렇게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람도 없이 하되 항상 정성을 다해야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국수 삶는 일은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분수껏 살면서 자성의 근본 마음자리를 밝히는게 제일 중요함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꼭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뚜렷한 신념을 가지지 않은채 입산하면 오히려 재가에 있을 만 못합니다.

중국의 3조 승찬스님이 쓰신 (심심명(惻心銘)에 보면 막축유연(莫逐有緣)하고 물주공인(勿住空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연이 있다는 말은 곧 세간법을 의미하는데 인연으로 이뤄진 세상일이라는 뜻입니다. 공의 지혜(空忍)란 곧 출세간법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있는 세상일도 쫓아가지 말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니 어느 한쪽에 머무는 것은 다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있음에 머물러도 병이고 공함에 머물러도 병이라는 뜻입니다. (심심명)에는 또 누구든지 깨치려면 진

이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도불교강좌(3년과정)

'99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이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도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 정도법사 3년 과정의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Table with 2 columns: 교과목 (Instructor) and 교수진 (Faculty). Includes subjects like 인도정토사, 중국정토사, 한국정토사, 인종집요, 이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왕생론, 반주삼매경, 무량수경중요, 보살삼매론, 미타에참법, 염불요론, 염불의례, 정토미술, and Hanbosal (Korean), Buddhist Education (佛敎), Buddhist Psychology (佛敎心理), Buddhist Philosophy (佛敎哲學), Buddhist Law (佛敎法), Buddhist History (佛敎史), Buddhist Art (佛敎藝術), Buddhist Music (佛敎音樂), Buddhist Literature (佛敎文學), Buddhist Language (佛敎語言), Buddhist Culture (佛敎文化), Buddhist Social Work (佛敎社會工作), Buddhist Economics (佛敎經濟), Buddhist Politics (佛敎政治), Buddhist Law (佛敎法), Buddhist History (佛敎史), Buddhist Art (佛敎藝術), Buddhist Music (佛敎音樂), Buddhist Literature (佛敎文學), Buddhist Language (佛敎語言), Buddhist Culture (佛敎文化), Buddhist Social Work (佛敎社會工作), Buddhist Economics (佛敎經濟), Buddhist Politics (佛敎政治).

3. 모집방법 및 전형

Table with 7 columns: 모집인원 (Recruitment), 지원자격 (Application), 제출서류 (Documents), 원서교부·접수 (Application), 전형방법 (Exam), 강의일시 및 장소 (Lecture), 비고 (Remarks).

4. 입학일시

1999년 6월 3일 (목) 오후 7시(동산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02-732-1217, FAX 732-1207)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서 울 : 보림각 (조계사앞) ☎ 02) 733-0333 부 산 : 불서보급사 ☎ 051) 246-4321
대 구 : 삼영불교서림 ☎ 053) 425-4097 대 전 : 보문서점 ☎ 042) 257-0161
광 주 : 불일서점 ☎ 062) 232-7542 제 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 55-2203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도염불법사 수여

전국 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佛敎大辭典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불교를 바로 알고 싶습니까!

절에 10년을 다녀도, 날마다 법문을 들어도, 부처님의 정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 대사전』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불교대사전 정가 220,000원, 불교사전 정가 70,000원 (주문가230,000원)

신한은행:324-12-407937, 농협:053-01-102503 (예금주:김정길)

도서출판 흥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